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 '99 홍해작전 6월 6일(주일) 저녁부터 행진 시작

# "악에서 구하옵소서"

'99 홍해작전의 행진이 6월 6일(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부터 시작된다.

이번 홍해작전의 주제는 "고치시는 그리스도"이며 표어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 6:13)이다. 이 주제와 표어는 세속 문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고와 행동 규범을 상실한 오늘의 상황에서 '99홍해작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 신앙과 천국 유리를 회복하고자 정한 것이다. 특별히 이번 홍해작전은 20세기 마지막 해로 새 천 년의 문턱에 있는 시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99홍해작전 기간 중 특별새벽기도회는 7일(월) - 26일(토)까지 매일 새벽 5시에 시작한다. 1시간 동안 진행되는 특별새벽기도회에서는 일곱가지 기도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이종윤 목사의 설교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늘의 음성을 듣고 고침을 받는 기회를 갖게 된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홍해작전을 6·25 기념일이 포함된 6월, 특별히 현충일인 6일에

개전한다. 올해는 6일이 주일인 관계로 새벽에 시작하던 다른 해와는 달리 저녁 5시 찬양예배 시 갖는 발탁식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홍해작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걸어서 홍해를 건넌던 역사적 사건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현재의 갖가지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의 프로그램이다. 이번 홍해작전의 개요와 기도제목은 다음과 같다. <조직표는 4면에>

### '99 홍해작전 개요

- 기간: 1996년 6월 6일(주일 저녁 발탁식) ~ 6월 26일(토요일 새벽), 21일간
- 주제: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 표어: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6:13)
- 행동강령: 1. 신행일치의 균형잡힌 삶을 살자.  
2.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자.  
3. 그리스도의 몸 되신 서울교회를 사랑하자.

### '99 홍해작전 기도제목

- 1. 경건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게 하소서
- 2. 비전 2020운동을 통해 민족 75%를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소서.
- 3. 기독교교도소를 설립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두운 사회를 비추게 하소서.
- 4. 탈북자 보호를 위한 UN난민청원운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 5.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의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교회 갱신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 6. 농어촌 100교회운동을 통한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소서.
- 7. 서울교회 성도마다 믿음이 부요한 자가 되고 생활에 모범자가 되게 하소서.

## 장로 · 집사 · 권사 후보 투표 결과

지난 주일(2일) 정기제직회에서는 집사, 장로 그리고 4월 29일 당회에서는 권사 후보 선정을 위한 투표를 각각 실시했다.

16일(주일) 찬양예배 후 가질 공동의회에서는 안수집사 20명과 권사 50명을 선출케 되며 30일(주일)의 공동의회에서는 장로 7명을 선출케 된다.

제직회와 당회에서 투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장로 후보 투표 결과

이번생 임훈규 민순주 윤찬오 허희철 홍성주 이원형 김세재 박두영 이관규 전기섭 조정식 신용식 김영주

### ▶ 집사 후보 투표 결과

허상한 신순우 이남성 정동호 최재규 김규태 김금준 송인권 김현영 오유식 김용호 장양일 윤성남 윤운식 탁재준 이태원 이학주 안인호 양인수 정무균 김성준 광동희 강종찬 유 신 고영철 이영조 김중근 김재중 하인선 권장철 이강인 한주찬 박성현 유근중 최차순 안창휘 김중윤 김광욱 김시환 이재운

### ▶ 권사 후보(가나다순)

가원정 권길자 관석자 김명옥 김선희 김성은 김수호 김윤자 김인희 김차순 김희숙 나옥녀 남태순 박명석 박영자 박혜태 서옥덕 선연자 송두심 송옥혜 신동기 심화숙 여영숙 여현진

오영자 왕경희 이민자 이봉규 이연숙 이영숙 이영희 이용자 이운진 인찬희 임운자 전수자 정연택 청현숙 조상희 채덕희 최근자 최봉애 최원자 최일춘 한건석 한춘홍 황노전 황보차 황인숙 황재연

### 부목사 청빙

서울 교회는 하나님의 목회에 동참할 비전과 사명을 가진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자격은 본교단 소속 목사로서 안수받은 지 1년 이상이며 제출서류는 자필이력서(명함판 사진), 본 교단 목사 추천서, 신앙고백서,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종합병원건강진단서(부부)입니다. 접수는 24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사무국(517-7651/5)

이사야 강해

저녁의 경고

이사야 21장 13 - 17절

아라비아는 저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을 저녁의 경고라고 부릅니다.

이사야는 앗시리아가 순식간에 아라비아를 정복하여(BC 700년) 아라비아는 졸지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언을 하며 드단과 게마와 게달이라는 세 개의 도시 이름을 언급합니다. 드단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게달은 이스마엘 열두 아들 중 둘째로 게달은 후일에 베드윈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게마는 이스마엘의 아홉 번째 아들입니다. 드단과 게마와 게달의 모든 후손들을 가리켜 아라비아 족속이라고 합니다. 아라비아 족속은 용감하고 힘이 세며 가축을 잘 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저들은 때를 지어 다니는 대상이었으며 장막에도 거하고(렘 49:29) 촌락에도 정착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합니다.

1. 환난이 올 것을 준비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아라비아에게 밤이 되면 파사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히 피난하기 위해 수풀에 들어가 밤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13절). 이것은 전쟁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라비아에 한 전쟁에 관한 경고는 바로 오늘 우리 나라에 들려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가난의 경고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한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역사를 주장하던 나라들이 속속 무너지는 모습을 익히 보았습니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고장이 주어질 때 준비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날에 위로 받기를 원하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합니다. 환난날에 대한 가장 안전한 대비는 참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기도의 체험도 있어야 되고 은혜 받은 체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를 받고, 생명력이 있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희락은 의와 평강이 있을 때 맛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전쟁이 와도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기쁨을 갖게 됩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라 데마 땅의 주민들이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펜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나라 주께서 아라비아에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 같이 일 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기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17절).

아라비아의 경고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종운 목사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힘있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2.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도우라

“데마 땅의 주민들이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14절).

이것은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5:35, 36, 40, 45).

소의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환난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3. 게달의 자랑거리가 사라져 버릴 것이다

“품꾼의 정한 기한 같이 일 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16절).

하나님이 하시면 이와 같이 빠른 시간 동안에 한 국가도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이 가진 명예와 부귀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불타버릴 것들뿐입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큰 상을 받을 터인데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것

입니다. 이사야서 21장 전체를 보면 그렇게 강하던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남을 속이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남을 속이는 자는 반드시 자신도 속는 날이 오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원수가 멸망하는 것까지도 가슴 아파하는 긍휼의 심정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저들을 마땅히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쟁 중에 다른 사람을 피수꾼으로 세워놓고 자신은 술 취해 있는 사람, 이와 같이 열락에 취해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을 만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마 백성들처럼 아침을 간절히 기다리나 아침이 온다고 해도 곧 밤을 맞게 될 것입니다.

게달의 영광은 쇠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환난을 준비하고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늘에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다사로운 햇살에 그리워지는 엄마 보세요

이곳 시애틀에서 생활한 지도 벌써 1년이 다되어 가네요. 그동안 인간과 문화, 생활 습관이 틀린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엄마, 결혼하고 나서 변한 것 중 하나는 예전엔 나 하나, 기껏해야 가족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도 힘들어 했던 것이 이제 기도의 분량이 많아졌어요. 삶 곳곳에 기도해야 할 일들이 있고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 열광기상하와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예전엔 미처 못느끼고 지나쳤던 말씀들에 도전을 받곤 해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모두 구원받지는

못함을 보고 이런 기도를 드려요.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유산을 간직하게 하소서!" 라고.

엄마 지금 이곳에서 제가 그리워하는 것은 서울교회에서 들었던 말씀과 은혜로운 성찬식, 찬양 시간들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서울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가 생각하게 되요. 여긴 그런 말씀과 또 그 말씀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적거든요. 말씀의 깊이를 느끼게 해주시는 목사님의 설교, 열심으로 헌신하시는 장로님들, 손발 건어부치고 일하시는 권사님들. 특히 그런 권사님들의 넉넉한 웃음과 사랑이 너무 그리워요.

엄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믿음이 회복되지 않도록, 또 이곳 교회를 위해서...

오늘은 너무 따뜻한 날이에요. 창문을 통해 햇살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들어와요. 집 튼들도 많이 자랐어요. 내 마음도, 신앙도 이렇게 쭉쭉 자라서 아름답게 꽃을 피웠으면 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지나다가도 가까이 다가와서 행복한 마음을 품게 되도록요.

엄마, 사랑해요. 행복하세요.

시애틀에서 엄마 딸 혜련이.

### 우리 자녀 이렇게 키운다

### 전적 은혜, 잠언 말씀, 중보 기도

권순단(권사, 9교구)

가족구성원 간에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어 약점이 모두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우리가 부모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듯 허물과 약점이 많은 우리가 부모 노릇을 바르게 한다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모된 자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부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지 못할 때에도 우리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결국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겼을 때만이 참된 힘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녀 교육은 자신의 인격을 훈련하는 일이며 일생의 과업이기에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자녀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마다 일마다 자녀들에게 매를 들고 훈계를 해야 할 일인지 사랑으로 덮어두어야 할 일인지 망설여지고 때

로는 무모한 행동을 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매일 그날의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교육의 지표를 얻는답니다. 잠언의 말씀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말씀으로 부모인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더불어 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삶, 교우들의 사랑에 가슴 벅찬 감사를 포함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우리 가정은 놀라운 변화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하여

김정란(집사, 6교구)

어떤 녀석이 태어날지 궁금함과 기대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속에서 기도로 열매를 기다려 만난 소중한 보연이와 소연이는 제게 이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저는 사랑스런 우리 두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알려 주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연이와 소연이에게 어려서



### 사랑하는 할머니께

할머니, 올해도 벌써 다섯 달이나 지났고 아버지 주일이 되었어요.

예전엔 아버지주일이면 엄마보다 먼저 생각나는 분이 할머니였죠. 어릴 때부터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는 정말 저에게 엄마 이상의 존재였어요. 할머니처럼 저를 생각해 주셨던 분은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거예요. 언제나 사랑과 정성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셨죠. 제가 아플 때면 밤을 지새시면서 병간호를 해 주셨고, 비 오는 날에는 항상 교문 앞에서 우산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교회학교에서 배워 알고 있는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처럼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하나 말하자면 너무 많아서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 이제는 쓰러져 어린 아기와 같은 모습이 되셨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저희를 돌보아 주시는데 쓰셨기 때문일 거예요. 이제 예전과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와요. 그리고 할머니가 저에게 주셨던 그 희생적 사랑에 비하면 제가 할머니께 해 드릴 수 있는 일은 얼마 안되는 데도 그나마 잘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다시 예전과 같이 회복되시길 기도할게요. 그리고 더욱 할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서 노력할게요.

할머니, 이제 마지막으로 할머니께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리고 오래 오래 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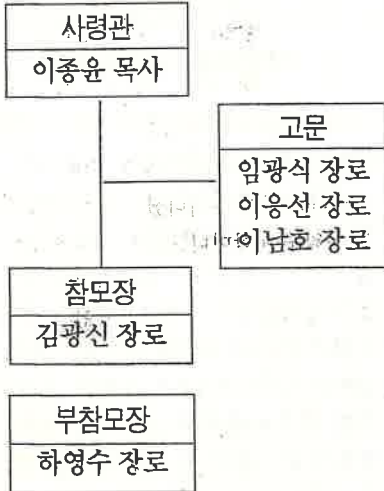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는 손자 재균 올림

부터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에 온 힘을 쏟아 힘써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어느덧 초등학교 5학년과 1학년이 된 보연이와 소연이. 저는 앞으로도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기를 권면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늘 성경을 상고하고 귀한 주님의 진리들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9홍해작전 조직**



- **기획참모:** 박철훈 김인수 김형택 박연순 서춘식 유명석 이변생 이완형 이은옥 최형렬 황정욱 홍성주
- **예배참모:** 성준경 김민철 김승현 김영주 박두영 손지희 오광환 오형철 오혜진 윤찬오 이계홍 최재규 황유석 홍정선
- **찬양참모:** 이영기 강민희 맹성재 박경희 박우욱 배영준 백수남 신용식 오승민 이광석 이태상 임훈규 정동호 황정임 허희철
- **전도참모:** 최종시 권영욱 김경욱 김명화 김상욱 김성준 김예환 박정수 송인권 손대기 심재을 양인수 오유식 우지원 이관규 이상호 이영숙 이종형 이태원 이해순 전용순 정정숙 최용걸 최재춘 한성욱 허 숙
- **동원참모:** 정병무 지역장, 부지역장, 다락방장, 교구간사
- **홍보참모:** 오정수 김규태 김세재 나소정 문형미 박은경 신동기 이운진 이종혁
- **봉사참모:** 박두호 고영철 권오준 김현정 박경희 박정순 서춘식 송숙영 왕경희 이기홍 이성애 이승우 이영자 장양일 한길동 함은희

**다락방 찬양대회 오늘 찬양에배시 시상**

다락방 찬양대회 시상식이 오늘 찬양에배 시간에 실시된다.

7일(금) 오후 7시에 시작한 다락방 찬양대회에는 노인에서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230여 명이 참가하여 지정곡인 찬송가 446장과 자유 곡 등 찬송가 2곡으로 열린 경연을 벌였다.

오늘 수상하는 다락방은 사랑상 상계연합 다락방, 소망상 반포연합다락방, 믿음상 1교 구연합다락방, 희망상에는 도곡2다락방과 방배연합다락방 등 5개 팀이다.

다락방 찬양대회는 다락방별 또는 연합 다락방별로 팀을 구성하여 참가한 것으로 다락방의 활성화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이는 작년까지 해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열렸던 가족찬양대회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다락방 찬양대회는 성도들의 음악적 수준 향상에 큰 기여를 했을뿐 아니라 다락방 식구들의 교제에 큰 몫을 했다는 뒷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번 대회 참가를 위해 한 성도는 수술 후 병원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쓰러지더라도 찬양하는 무대 위에서!"라며 조기

퇴원을 하기도 하고, 다른 팀을 드러내 주기 위해 참가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는 한 다락방은 연습하면서 나눈 성도간의 교제를 사랑하기도 했다.

오늘 수상하는 팀의 참가자 전원에게는 푸짐한 상품이 주어질 예정이다.

**교회학교 소식**

- \* 유아부는 13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유아부실에서 학부모초청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는 "자녀의 신앙 교육과 부모의 역할"이며 강사는 이영희전도사(유아부 지도)이다.
- \* 유치부는 4월 25일(주일) 성경암송대회를 개최했다. 30개월된 어린이에서부터 7세의 어린이까지 많은 어린이들이 참가했다. 미처 못 외운 어린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매달 암송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 유년부는 오늘 학부모초청 찬양대회를 개최한다.
- \* 중등부와 소망부는 두 부서의 학생들이 일대일로 결연하는 순서를 갖고 앞으로 1년

간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게 된다.

**동정**

- \* 이종윤 목사는 10일(월) 총회 21세기정책협의회에서 발제강연을 한다. 12일(수)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제 61회 회장협의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서울여대 이사회에 참여한다.
- \* 박성현 집사(3교구 일원다락방)는 11일(화) 강서구 염창동에 (주) 동우월드에서 앤 씨를 확장개업한다(☎ 3665 - 5188)
- \* 허동혁 군(중등부, 허상한·최재춘 집사 아들)은 1일(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초구 청장이 수여하는 서초구 선행과 모범학생대상을 수상했다.
- \* 에스더전도회와 마리아전도회는 주방용품을 기증했다. (후라이팬 10개, 향아리덮개 5개)
- \* 이번 주 식사는 흥정선 집사·강풍자 권사 가정에서 제공한다.

**이종윤 목사 방송실고**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섬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기독교방송(HLKX 1188kHz) 생명을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99 홍해작전을 통해 고침을 받고 새로와질 수 있도록
2.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3.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서울성경대학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위치**

